

건전성 관리 최우선...성장동력 확보 등 5대 경영 추진

광주은행 2024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금리인하 기대감 가계부채 증가세...부실채권 등 리스크 대응 주력 소상공인·중기 등 지원 강화...1조3030억원 상생금융지원금 편성

광주은행이 건전성 안정화, 영업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효율적 인력·채널 전략,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등 5대 경영 방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금융 환경 약화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지속가능한 '100년 성장' 경영을 위해 '건전성'을 가장 중점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은행은 29일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상반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점 및 직원 시상 등 상반기 경영실적과 하반기 경영방향 및 추진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 국민연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SG모델을 구축한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이사를 초청해 '국내외 최신 ESG 트렌드와 금융업의 ESG'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 "최근 국내 기업 이자보상비율이 대폭 하락해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 또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은행 건전성의 바로미터인 대손충당금 최소화를 통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응한 영업력 증대 ▲내실성장을 위한 손익 마인드 제고 등을 강조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올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산건전성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간접비 설정 관리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관리, 위기관리 계획 마련, 연체 및 고정이여신(부실채



29일 광주은행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상반기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이 금상을 수상하고 고병일 은행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권) 등 리스크 대응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창립 56주년을 앞두고 지역경제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역상생 경영을 기치로 삼고, 올해 민생금

융지원 293억원, 서민금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이뤄진 상생금융지원에는 1조303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최근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지역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부터 '텐텐(ten-ten)양궁단' 등 스포츠 분야, 지역 장학생 장학사업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반도체' 울고 '석유화학' 웃었다...광주·전남 주력사업 수출 희비

광주세관, 수출 동향 발표...광주 3.6% 감소·전남 5.3% 증가

광주의 주력산업인 수출장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한 66억5820만 달러,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194억1911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의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산업의 더딘 업황 회복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며, 전남은 석유화학 제품 산업이 수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은 29일 2024년 상반기 수출장비·석유제품 등 광주·전남지역 6개분야 주력산업에 대한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6월 누계 기준 광주지역의 수출장비·반도체 산업 수출은 광주 전체 수출 대비 78.2%이며, 전국 같은 산업 수출 대비 10.4%를 차지했다.

전남지역의 석유·화학·철강제품 산업 수출은 전남 전체 수출 대비 80.5%이며, 전국 대비 20.8%를 차지했다.

광주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장비(0.7%) 수출이 소폭 증가했고, 반도체(11.0%)는 감소했다. 수출장비 가운데 승용자동차(2.3%)·타이어(1.3%)·화물자동차(19.0%)가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부품(39.1%)·기타수송기기(81.7%)는 감소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122.0%), 직접회로 반도체 및 부품(23.6%), 개별소자 반도체 및 부품(20.8%), 실리콘웨이퍼(421.5%) 등은 수출이 증가했으며, 프로세스와 콘트롤러(11.6%)는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했던 승용자동차, 화물차

동차 등 수출장비는 2019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는 2022년도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다.

전남은 주력산업인 석유제품(7.7%), 화학공업품(8.4%)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수출이 증가했으나 철강제품(3.3%)의 경우 소폭 감소하며 전체적으로는 5.3%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경유(11.4%)·나프타(19.5%) 등 모두 전년 대비 수출이 늘었고, 화학공업품은 인조프라스틱(1.9%)·유기 및 무기화합물(12.3%)·기타 화학제품(50.3%)의 수출이 증가했다. 합성수지(0.9%)의 경우 소폭 줄었다.

철강제품은 철강의 판(8.8%)은 감소했으나, 합금강의 판(3.2%)·철강의 괴(18.1%)·기타 금속제품(41.7%)은 모두 증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5600억 긴급 투입

민원접수 전담창구 운영

8월 1~9일 분청조정 신청 접수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6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9일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를 열고 피해기업에 대상으로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경영여로 판매업체 긴급 자금지원, 긴급대응반 구성 등으로 신속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청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완근 신임 본부장 부임

박완근(55·사진) 신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 29일 부임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지난 1995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직후 한국은행에 입행해 조사국, 정책기획국, 발권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어 금융안정국 과장, 금융안정국 팀장, 국고증권실 부실장, 발권국 부국장, 발권업무부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박 본부장은 재직 중 국무총리실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파견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같은 경력을 인정받은 박 본부장은 조직 내에서 금융안정, 발권 업무 등에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완근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연구, 안정적인 화폐수급 관리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65.53 (+33.63)
↑ 코스닥	807.99 (+10.43)
↓ 금리(국고채 3년)	2.980 (-0.044)
↓ 환율(USD)	1383.65 (-2.15)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